

### 방송과 식품에 대한 편견

#### 양산로



이철호 한국식품안전보안연구원 이사장

음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편견이 오히려 현대인의 육체적 건강을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도 해치고 있다.

TV에서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면 다음날 시장에서 그 제품이 동이 날 정도로 팔리고 어떤 식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온 국민이 패닉에 빠진다. 국민이 이렇게 음식에 대한 보도에 관심을 가지니 방송들은 앞다퉀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 시청자들을 호객하고 있다. 별로 먹지도 않는 생소한 음식들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매일 먹는 음식들이 착하지 않은 음식으로 매도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국제식품정보서비스(IFIS)에서 발간하는 '푸드인사이트(Food Insight)' 최근호는 슈퍼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기사를 실었다.

소비자들은 슈퍼푸드라 하면 슈퍼맨을 연상하게 되고 먹으면 힘이 나고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미국 터프스 대학의 제프리 블럼버그 교수는 슈퍼푸드에 대한 명쾌한 정의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슈퍼푸드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과학적으로 어떠한 검증이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슈퍼푸드는 기능성 식품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한다.

기능성식품이란 단백질, 필수지방, 비타민, 미네랄처럼 기존에 잘 알려진 영양성분 이외에 생리적으로 작용하는 기전이 밝혀진 생리활성 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 먹으면 혈당조절

이나 혈압, 순환계 기능에 도움을 주거나 뼈 건강, 변비, 체중조절 등에 효과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식품은 특정 생리기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관계 당국이 표시를 허용하고 그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이다.

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유용한 식품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편승하여 슈퍼푸드와 같은 잘못된 용어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방송채널 다양화로 각종 종편들이 시청률 경쟁을 하면서 저속한 개그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건강과 음식이야기가 주 메뉴가 되었다.

사이비 전문가들이 주위들은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확대 재생산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고 그것으로 방송사들은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

슈퍼푸드 열풍, 글루텐프리 메뉴, MSG 공포 등 시간이 지나면 비교과적이고 터무니없는 난센스로 밝혀질 일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가적으로 저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남기고 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공격성을 지녀야 하는 방송이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이다. 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신중하게 보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슈퍼푸드는 없다. 글루텐을 함유한 맥류는 인류가 수천년 동안 먹어온 주식이다. MSG는 단백질의 주성분이다. MSG 공포를 유발시켜 우리나라 조미료 산업이 무너지고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해 먹고 있다. 이런 일을 꾸민 사람들이나 부화뇌동한 언론 아무도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신성한 물질이고, 신선하고 깨끗하게 조리된 것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 벤처칼럼



장영현 배화여대 스마트IT학과 교수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봉, 청년취업이 온 국민의 화두 중 화두다. 더 이상 한순간도 늦출 수가 없으며 다급하다.

정부, 기업, 사회가 삼위일체로 혼연일체가 되어 부모님 같은 내리사랑으로 한없이 보듬고 다독여야 한다.

IT 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IBWA-G 클라우드 네트워크 협력센터에서 청년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자신에게 딱 맞는 모자를 쓴 것처럼 수 있는 온라인 잡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수 있으며 또는 기업제안의 과제수행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구인 및 수요기업은 글로벌 ICT를 이끌어가는 한국기업의 제품에 실시간 적응력이 완벽하고 응용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청년들의 무한하고 참신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

참여자 아이디어 및 구현능력을 사전 검증하는 것도 병행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안정맞춤인 윈-윈 전략 모델로 판단된다.

아이디어는 공모전 형식으로 일정 기간에 수행되거나 상시제안도 가능하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사업화 지원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및 수요기업과 매칭이 이뤄지며 우수 팀 창업교육을 거쳐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홍보를 위한 신문기사와까지 지원되며 최종적으로 구체화된 아이디어나 시제품의 발표와 동시에 기업의 채용설명 매칭데이 행사가 이뤄진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보면 국내 노인요양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WEB&APP 서버 블루오션 플랫폼, 소리를 입력받아 약보를 출력하는 약보메이커, 모바일 안의 3D설계도, 문턱을 넘는 휠

체어 등 전체 기술 분야를 기반으로 융합의 정점에 이르는 놀랄 만한 아이템이 준비하다.

청년취업 내리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과 청년의 양방향에서 자발적으로 누구나 스스로 일거리와 일거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성장하는 창조경제의 구현 핵심을 보여준다.

창의적인 SW지향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인재들,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조, 하드웨어 중심의 중소기업이 다 함께 소프트웨어 융합형 신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성장하는 내리사랑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기업은 신규 사업아이템에 대하여 클라우드소싱 형태로 무한확보가 가능하며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가족회사 차원으로 창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화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현장실무 지향성 인재재용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상의 맞춤형 시

스템 조합이다.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연구논문에서 세계 180개국 중 평균 아이큐가 제일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이었다.

1위는 106의 한국, 2위는 105의 북한과 일본에 이어 대만과 독일이며 중국은 100으로 10위권이며 미국은 98로 20위권이다. 한국과 북한이 동반해 짝을 이룸이 더 기쁠 따름이다.

인사가 만사임도 틀림없으나 인재가 만사이며 창조능력이 만사인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이 제일 중요한 국가와 사회의 인프라가 되는 미래는 더욱 더 그렇다. 모든 대한민국인 자체가 세계에서 볼 때 당연지사 글로벌 인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연구결과이다.

대한민국 미래 희망봉, 광개토 청년들에게 사회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기업이 나서서 내리사랑으로 세계를 무대로 춤추게 하자. 2016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과 점유율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다.

한국의 삼성이 시장점유율도 1위이며 출하량도 1위다. 미국 애플은 2개 분야에서 전부 2위다. 우리의 미래는 세계 최고의 반열이다.

### 미망인(未亡人)

#### 이재경의 말글

며칠 전 지인의 부친상 부고를 접했습니다.

‘○○○님의 부친 ○○○님께서 2016년 4월 ○○일 별세. 빈소: ○○○병원 장례식장. 발인: 2016년 4월 ○○일. 장지: ○○○. 상주: ○○○, ○○○. 자부: ○○○, ○○○. 미망인: ○○○’

필자는 이 가운데 ‘미망인: ○○○’에 눈길이 갔습니다. ‘미망인: ○○○’은 돌아가신 분의 부인, 즉 상주의 어머니를 일컫습니다. 대부분의 부고에는 ‘미망인: ○○○’을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부인을 가리켜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미

망인’은 과연 적당한 말인가요? 미망인(未亡人)을 우리말로 풀어 쓰면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편이 죽고 홀몸이 된 여자, 즉 과부를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했을까요.

고대에는 순장(殉葬)제도가 있었습니다. 순장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음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어서 먼저 죽은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 풍속을 말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순장 풍속으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목숨을 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지증왕 3년에 왕명에 의해 순장이 금지되기 전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망인이란 말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곧은 절개와 희생만을 강조하던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

에는 ‘남편이 죽었으니 당신도 따라 죽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미망인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오늘날에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신문에는 생전에 이름이나 남편의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자주 눈에 띕니다. 남편이 죽은 뒤 부인도 따라 죽으면 남은 아이들은 누가 키울 것인가도 문제이고, 더욱이 여권이 신장되고 있는 21세기에 와서 미망인의 뜻을 안다면 결코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물론 ‘남편이 죽었는데 나는 명이 길어 이렇게 살고 있다’며 부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미망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망인 대신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은 없을까요? 부고에서는 미망인 대신 ‘고 ○○○의 부인’ ‘돌아

가신 ○○○의 부인’, 혹은 돌아가신 을 빼고 그냥 ‘○○○의 부인’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즘 개신교에서도 미망인을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족으로 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쓰이고 있는 ‘전쟁 미망인’(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 ‘40대 미망인’ 같은 용어를 대체할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부’라는 말이 있지만 속된 말로 인식돼 ‘전쟁 과부’ ‘40대 과부’ 등으로 지칭하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유부인’으로 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유가족, 유복자, 유인’ 등처럼 홀로 남겨진 부인을 ‘유부인(遺夫人)’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여하튼 ‘미망인’이란 말은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할 구시대적 용어입니다.

이재경 교열위원

####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 리더를 위한 종합경제신문 www.g-enews.com

발행인 겸 편집인 박형준 사장 현형식 광고국장 남경진 법인명 (주)그린미디어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612(양평동3가, 우림e-Biz센터) 구독료 1부당 15000원 / 월 60000원 / 1년 720000원 대표전화 021323-7474 / 팩스 021325-7474 2016년 5월 2일 창간 2010년 9월 29일 등록번호 서울 다10522 (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쇄처 세계일보제작단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펼치는 세계 최고의 태권도 공연**

**국기원태권도시범단 GREAT TAEKWONDO**

**2016.2.23~Open Run**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강남구 국기원 공연장 / 목·금 19:30, 토·일 14:00 문의 : 02)3469-0133

국기원, 강남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